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4)(12/17/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0 장 세상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달콤한 삶, 1-2 절

시 31:19 -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창 1:27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 119:73 -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 116:12 -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 <제자> 주여, 이제 나는 침묵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시 31:19).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묵상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달콤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특히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내가 주를 멀리 떠나 방황할 때에 나를 다시 데려와서 주를 섬기게 하시며, 내게 주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므로써, 주의 달콤한 사랑을 내게 부어 주셨습니다.

2. 오, 영원한 사랑의 샘이시여, 내가 감히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파리하게 시들어서 다 죽게 된 후에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게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여야 합니까?(시 116:12)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버리고,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대단한 일이겠습니까?(삿 16:15). 내게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 같이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를 주의 종으로 받아 주셔서, 주의 택하신 종들 중의 하나로 삼으신 것이 크고 놀라운 일로 보입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크고 깊은 은혜, 더 넓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된다.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며, 주를 향한 사모의 마음도 깊어진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린다. 눅 5 장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고 하셨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기를 잡았고 결국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받아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 말씀은 여러가지 메시지를 품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인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아울러 믿음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깊은 곳이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된다고 여겨지는 곳, 두려운 곳, 원치 않거나 꺼려지는 곳 등을 포함한다. 깊은 곳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곳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깊은 곳은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엄청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 마 28 장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이 되어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 **마 28:1, 8-10 -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극진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지를 보시며, 그 모습대로 혹은 그 반대의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받게 하신다. **시 18:24-26 -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적 책무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가진 만큼 더욱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더 커지고 성숙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야 하며, 하나님께 수많은 것을 받아 누려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위로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거룩한 책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 13:34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은혜받고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를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2. 세계 만방에 보냄을 받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강력한 성령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3. 코비드 19 로 인한 펜데믹을 주의 권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의료진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에게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의 마음을 주심으로 어려운 현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